■ 코로나 시국이 가져 온 '경조사 문화'

직접 참석보단 축의·조의금만…

집단감염 우려 따라 친척·소수 지인들만 얼굴
부조금 계좌번호 놓고… "이해돼" vs "좀 생경"

코로나19 재유행과 다중집합시설 관련 감염자 급증에 사람이 밀집하는 경조사 때 입장 인원을 제한하면서 결혼식과 장례식 문화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친인척과 가까운 지인들의 경조사를 직접 돌아보는 것은 우리네 미풍양속인데 그럴 수 없어 안타깝다는 이들이 적잖은 가운데 축의금과 조의금만 전하는 이들은 부쩍 늘어났다. 경조사 직접 참여를 자제하면서 동창회나 각종 친목 모임에서 부조금 계좌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일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확 늘어나는 분위기다.

지난 연말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60대 김 모씨. 그는 일가 친척을 제외하면 전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의 조의금 중 절반 가까이를 은행 계좌와 카카오톡으로 받았다. 동창회 등에서도 1~2명이 대표로 장례식장을 다녀가며 지인들의 조의금을 대신 전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입장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데다 지난해 12월 한 장례식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며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탓이다.

"장례식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찾아온 손님들 대부분이 얼굴만 잠시 보고 갔고, 이전 같았으면 장례식 내내 자리를 지켰을 친척들도 잠시 머물다 간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전화로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이들도 있었다고 했다.

역시 최근 아버지 장례를 치른 50대 공무원도 상황이 비슷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추세를 보인데다 한 장례식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며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앞두고 16일부터 공직자의 경조사 참석 금지령을 내리면서 장례식장을 다녀간 현직 공무원은 없었다. 가까운 친구들과 퇴직 공무원 몇몇이 잠시 찾아 조의금을 전하고 갔을 정도여서 장례식은 직계가족 중심으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이처럼 사우나, 라이브카페, 교회 등 다중집합 장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얼굴을 마주하며 상주를 위로하거나 혼주를 축하하는 이전의 경조사 문화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고나 결혼식을 알리면서 계좌번호를 함께 넣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한 도민은 "어디서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조사 장소가 코로나19 전파처가 되면 서로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요새는 일가친척을 제외하면 부조금은 대부분 계좌번호로 마음만 전하고 있다"고 했다.

또다른 도민은 "최근 일부에서 부고나 결혼식을 알리는 문자에 계좌번호를 넣어보내는 경우를 두고 불편하다거나 생경하다는 이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부조금이 상부상조의 의미이고 코로나19로 경조사 참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천연 눈썰매장 '북적'… 거리두기 '느슨'

오름 주변 등 눈 쌓인곳 인파 행렬속 주변도로는 불법주차로 몸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방역대책에도 새해 첫 주말 한라산 산간도로 주변 천연 눈썰매장이 나들이객 인파로 북적이면서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제주시 1100도로와 5·16도로를 잇는 제1산록도로 어승생 수원지 인근 천연 눈썰매장 주변 도로는 빼곡히 정차된 차량 수십대로 몸살을 앓았다.

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를 올라타고 양 방향으로 길게 세워져 있던 탓에 이 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나드는 아찔한 곡예 운전을 해야했다. 이런 이유로 극심한 교통 정체까지 빚어져 제주도자치경찰단 순찰차가 긴급히 교통 정리에 나섰지만 워낙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아 역부족이었다.

도로 맞은편 야산은 아이들과 함께 눈썰매를 즐기려는 가족단위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한울누리공원 입구 주변, 전남대학교 제주학술림, 열안지 오름 목장 주변 등 눈이 쌓이고 경사진 곳이라면 어김없이 차량과 함께 인파가 몰렸다.

제주도는 지난해 연말 내린 폭설의 영향으로 주요 산간도로에서 시행됐던 교통통제가 올해 1월 1일을 기해 모두 해제되면서 1100도로와 제1산록도로 주변 설경을 즐기려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추정했다. 추위에 지친 나들이객들을 노린 불법 노점상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나들이객 대부분은 도민들로 추정됐다. 도로 양 옆에 세워진 수십대의 차량 중 렌터카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자녀와 함께 눈썰매를 즐기러 온 A씨는 "집에만 있기가 너무 답답해 아이들과 함께 운동이라도 할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2일 1100도로 주변 편도 1차로 도로 양 옆으로 눈썰매와 설경을 즐기려는 나들이객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사진 위). 제주마방목지를 찾은 시민들이 눈썰매를 타고 있다. 이상민·이상국기자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3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며 3일까지 도내 '천연 눈썰매장'에 대한 출입 제한을 권고했다.

제주지역에는 스케이트장, 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이 없지만 눈이 오면 목장, 오름 등 산간을 중심으로 비탈진 곳 대부분이 천연 눈썰매장으로 변하다보니 연말·연시 이 곳에 많은 인파가 몰릴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연 눈썰매장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는 권고 수준일뿐, 강제성이 없다보니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모습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출입 제한 현수막을 내걸고 현장에 나가 계도활동도 벌였지만, 제주에는 워낙 비탈진 곳이 많다보니 역부족이었다"며 "특히 지난 2일 정부가 연말·연시 운영을 금지했던 눈썰매장과 스키장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기로 발표해 더 이상 도내 천연 눈썰매장에 대한 출입금지 권고를 연장하기에도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새해 첫 주말 25명 추가 확진

사우나·성당 관련 코로나 추가 감염 여전
3일 기준 누적 확진자 446명… 입원 159명

지난해 말 급증하던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둔화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사우나, 성당 등에 대한 접촉자 관련 확진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도 방역당국은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새해 첫주말 확진자 25명=제주특별자치도는 새해 첫 주말인 1~3일 총 2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지역 확진자 수는 3일 기준 누적 446명으로 늘었다고 이날 밝혔다.

새해 확진자 추이를 일일별로 살펴보면 1일 13명(제주422~434번), 2일 4명(제주435~438번), 3일 8명(제주 439~446번) 등이다.

3일 추가된 확진자 8명은 ▷한라사우나 관련 2명(439, 442번) ▷길직업재활센터 관련 3명(444~446번) ▷해외입국자 1명(440번), ▷확인중 2명(441, 443번)이다. 이에 따라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86명, 길 직업재활센터 관련 확진자는 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녕성당 관련 누적 확진자는 33명이다.

또 이날 11명의 도내 확진자가 퇴원함에 따라 입원중인 확진자는 159명이며, 격리해제자는 287명(이관 1명 포함)이다.

▶어린이집 임시휴원 10일까지 연장=제주지역 어린이집의 임시휴원 명령이 일주일 연장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489개소를 대상으로 임시 휴원을 결정한 바 있다.

도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더 연장해 확산 추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어린이집 휴원 시 맞벌이 가족 등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해 보육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휴원 명령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보육료는 전면 지원된다.

한편, 제주도 소재 어린이집은 총 489개소로 재원아동 2만3954명·보육교직원 5873명으로 확인됐으며, 휴원 기간(12월 28일~1월 3일) 평균 긴급보육률은 14.5%(3,484명)으로 나타났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5일 새벽 '눈'… 7일부터 또 한파

기상청 "체감기온 더 낮아"

5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5일 오전 3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제주 산지에 눈이 내려 쌓일 것이라고 3일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1㎝다. 제주 해안가 등 나머지 지역에는 5㎜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이번주 중반부터 추위가 시작돼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12일까지 추위가 예상된다"며 "추위로 면역력 저하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상청은 "7일부터 10일까지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는가 하면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이라며 "이 기간 다시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중기예보에 따르면 7일부터 10일 사이 아침 최저기온은 지역별로 제주시 -1℃~3℃, 서귀포 -2℃~2℃, 성산이 -2℃~1℃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눈이 많이 내린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밤에 얼어 붙은 눈이 낮에 녹았다가 다시 얼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1100도로, 5·16도로, 산록도로, 평화로, 번영로, 남조로 등을 중심으로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